

《祝福》의 魯四를 통해 본 儒·道互補적 民俗

尹順*

◁ 목 차 ▷

- I. 緒 論
 - II. 道敎의 “朱拓の大壽字”
 - 1. 붉은 色 民俗
 - 2. 陳搏의 大‘壽’字와 長壽 문화
 - 1) 陳搏과 그의 養生 功法
 - 2) 長壽 文化
 - III. “一邊的對聯”과 儒家의 道德修養
 - IV. 結 論
-

I. 緒 論

《祝福》¹⁾은 魯迅이 자신의 고향 紹興을 모델로 쓴 魯鎮마을의 이야기이다. 향토 색 짙은 본 소설에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사고방식·전통문화·종교·민속 등이 묘사되어 있어, 1920년대 실제 紹興사회의 여러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본고는 《祝福》에 관한 일련의 논문 중 세 번째 논문이다. 첫 번째 논문²⁾에서는 중국 江南一帶의 過年풍속인 ‘祝福’ 제사와 아울러 당시 사람들의 女性再婚觀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 논문³⁾에서는 道敎와 佛敎가 결합된

* 淸州大學校 中國學部 中語中文學專攻 敎授.

** 이 논문은 2010-2011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가 지원한 학술구조성비(특별연구 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魯迅의 대표적 단편소설 중 하나로, 1924년 2월 7일에 완성되어 동년 3월 25일 上海에서 발간된 〈東方雜誌〉(半月刊) 제21권 제6호에 발표되었다. 이후 두 번째 소설집 《彷徨》(1926年)에 수록됨.

2) 拙稿 〈魯迅의 《祝福》에 나타난 ‘祝福’과 女性再婚觀〉; 《국제문화연구》 제24집, 2006.2

형태의 민간신앙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소설의 주요등장 인물 중 하나인 魯四의 서체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儒敎와 道敎가 혼합되어 나타난 民俗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魯四의 인물형상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논문에서 '儒敎的 女性再婚觀'의 대표로 상세히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소설의 話者인 '나'의 숙부뻘 되는 친척으로 여주인공 祥林嫂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는 바깥 세상에 어두워 시대에 뒤쳐져 있고,⁴⁾ 겉으로는 짐잡은 태도로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봉건예교의 가혹한 잣대로 再嫁 과부인 祥林嫂를 멸시하고 타기하고,⁵⁾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理學을 신봉하는 연로한 監生」이다.⁶⁾

監生은 隋代에 설립된 이래 明·淸시대 최고의 學府였던 國子監의 학생이나 수

3) 拙稿〈人物로 본 《祝福》의 民間 宗教形態〉; 《人文科學論集》 제37집, 2008.8

4) 소설에서 魯四는 新黨과 康有爲를 욕하고 있다. '新黨'은 淸末에는 維新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辛亥革命 때에는 革命黨 사람들을 부르던 호칭이었다. 淸末에 康有爲는 維新을 주장하는데, 그 내용은 專制君主制를 立憲君主制로 혁신하지는 것으로 君主制 옹호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封建禮敎 관념에 젖어있는 魯四가 군주제 옹호론자인 康有爲를 욕했다는 것은, 康有爲의 維新이 君主制 폐지인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魯四가 新黨을 욕했을 때, '나'는 처음에는 자신을 욕하는 줄 알고 있다. 본 소설의 시대배경이 辛亥革命 13년 후인 1924년이므로 당연히 革命黨을 욕한 것으로 안 것이다. 그런데 新黨과 연계하여 魯四가 욕한 것이 康有爲였던 것을 보아, 그가 욕한 新黨은 淸末의 維新운동가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24년 당시에는 革命黨을 新黨이라 지칭한다는 것도, 辛亥革命으로 淸朝가 붕괴되고 中華民國이 창건(1912年)되어 새로운 民主時代가 도래한 것도 魯四는 모두 몰랐던 것이다. 주2)의 논문 참조.

5) 魯四는 소설의 여주인공 상림수가 과부인 것이 못마땅해서 미간을 찌푸리기는 했지만, 부인이 손발이 커서 일 잘할 것 같은 상림수를 마음에 들어 하자, 한 마디 말없이 묵인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儒家 禮敎의 관점으로 再嫁寡婦 상림수를 “풍기를 문란시키는”, “깨끗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며, 조상들이 드실 제사음식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금지시킨다. 부인은 남편의 혼계를 충실히 이행하여, 상림수가 기쁨과 자긍심을 느끼는 음식 만드는 일을 비롯한 祭祀에 관련된 일을 할 권리를 모두 박탈하고 만다. 이로 인해 상림수는 상실감과 죄의식에 깊이 빠지게 된다. 주2)의 논문 참조.

6) '道·理'를 중시하는 理學을 신봉하는 魯四는, '祝福'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하던 저녁, 상림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색을 드러낸다. 한 생명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그녀가 하필이면 이때 죽어서 福神과 祖上神께 올리는 제사에 부정 탈 것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지킬 道理를 위해서는 타인의 존재 따위는 하찮게 여기고 있는 假道學者의 모습이다. 魯四의 눈에 再嫁寡婦 상림수는 인간으로서의 생명 가치가 없는 “잘 못된 種子(謬種)”였을 뿐이다. 주2)의 논문 참조.

료자들을 통칭하던 칭호였다. 그러나 淸朝 乾隆시대에 이르면서 점차로 변질되어, 재정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재물을 헌납하는 자들에게도 監生 신분을 부여해 주었다고 하는데, 소설 속에 묘사된 魯四의 학문적 수준으로 짐작컨대 國子監 수료에 의심이 가므로, 그 또한 헌납의 경로를 통해 監生의 칭호를 얻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魯四의 서재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날이 더욱 어두워지더니 오후에는 끝내 눈이 오기 시작했다. ……내가 넷째 숙부의 서재에 돌아왔을 때는 기왓고랑 위가 이미 새하얗게서, 방안을 비교적 밝게 비추어 벽에 걸려있는 朱拓한 커다란 ‘壽’자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것은 陳搏 祖師가 쓴 것이다. 한 쪽의 대련은 이미 떨어져서 느슨하게 말려 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한쪽은 아직 걸려 있었는데, 말한 것은: “사리에 통달하면 심기가 화평하다”였다. 나는 또 무료하게 창문 아래에 있는 책상에 가서 뒤적여 보았는데, 완전치 않은 것 같은 한 무더기의 《康熙字典》과, 《近思錄集注》와 《四書禰》만 보일 뿐이었다.(天色愈陰暗了, 下午竟下起雪來, ……我回到四叔的書房裏時, 瓦楞上已經雪白, 房里也映得較光明, 極分明的顯出壁上掛着的朱拓的大壽字, 陳搏老祖寫的, 一邊的對聯已經脫落, 鬆鬆的卷了放在長桌上, 一邊的還在, 道是“事理通達, 心氣和平”. 我又無聊賴的到窗下的案頭去一翻, 只見一堆似乎未必完全的《康熙字典》, 一部《近思錄集注》和一部《四書禰》.)

이상은 소설 속 魯四의 서재에 대한 묘사 全文이다. 간단하고 짧지만 魯四 형상의 일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서재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康熙字典》과 《近思錄集注》, 《四書禰》 등이 監生 魯四가 주로 보는 서적들일 것이다. 《康熙字典》⁷⁾은 당시에는 12冊이 일반적이었는데, ‘완전치 않은 것 같은’ 이라 표현한 것은 권수가 모자라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近思錄集注》는 《近思錄》⁸⁾에 淸代 학자인 茅星來와 江永이 주를 단 책이고, 《四書禰》은 淸의 駱培가 四書を 해설한 책이다. 魯四의 이 책들은 모두 原典이 아니고, 후대의 학자들이 注를 달거나 해설한 宋代 理學의 入門書들이다.

이로써 완전히 구비되지 않은 字典을 가지고 입문서들만을 책상에 쌓아놓고 있

7) 淸朝의 張玉書·陳廷敬 등이 康熙皇帝의 칙령을 받고 편찬한 것으로 모두 47,035字를 수록한 대형의 字典으로, 康熙 55년 판본은 38冊에 이르기도 했다 한다.

8) 朱熹와 呂祖謙 등이 理學을 弘揚하기 위해 周敦頤·程灝·程頤·張載의 글을 수록한 理學의 入門書로 당시 학자들의 필독서였다.

는 魯四의 학문적 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勵志聯이나 祈福聯을 거는 민속에 대한 記述과 묘사 가운데, 《祝福》 소설 속 魯四의 서재 벽에 걸려있는 ‘壽’자와 對聯에 대한 묘사는 문학작품에 드물게 등장하는 대표적인 좋은 예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勵志聯이나 祈福聯 등을 걸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운데에 걸고, 양 옆에 그것에 부합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이 담긴 대련을 함께 걸어둔다. 勵志聯은 대체로 집주인의 좌우명이나 다짐, 스스로를 격려·고무하는 문장이고, 祈福聯은 자신의 소원과 福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글이나 그림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면 그 주인의 정신성과 생활태도, 미래의 희망 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문장의 묘사를 보면 魯四는 「朱拓한 ‘壽’字」를 가운데에 걸고, 「사리에 통달하면 심기가 평화롭다(事理通達, 心氣和平)」라는 대련을 옆에 걸었으니, 이것이 바로 魯四가 자신을 고무·격려시키고 희망하는 목표일 것이므로 이를 魯四의 勵志聯으로 부르거나, 長壽의 복을 비는 祈福聯, 혹은 통칭하여 勵志·祈福聯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儒·道互補’라는 용어는 李澤厚가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유교와 도교가 상호보충하는 형태를 일컫는 말로 정착되었다. 그는 《美的歷程》에서:

“儒·道互補는 2천년래 중국 미학사상의 기본적 실마리였다. …… 理性精神은 先秦 각파의 공통적인 경향이었는데, …… 그 중 미학, 즉 예술영역과 관계가 더욱 크고 깊은 것은 儒學을 제외하면 莊子로 대표되는 道家일 것이다. 老·莊은 儒家의 보충과 대립면이 되어 相反 혹은 相補적으로 중국인의 世界觀·人生觀·문화심리 구조·예술적 理想·심미적 情趣 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儒家와 함께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⁹⁾

라 하며 儒·道互補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美學에서 비롯된 이 ‘儒·道互補’라는 용어는 이후 철학적 ‘儒·道互補論’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 文學과 繪畫 방면에서

9) 李澤厚 《美的歷程》: 「儒道互補是兩千年來中國美學思想一條基本線索. …… 理性精神是先秦各派的共同傾向. ……其中, 與美學——藝術領域關係更大和影響深遠的, 除儒學外, 要推以莊子爲代表的道家. 老莊作爲儒家的補充和對立面, 相反相成地在塑造中國人的世界觀·人生觀·文化心理結構和藝術理想·審美興趣上, 與儒家一道, 起了決定性的作用.」(北京, 文物出版社, 1981), 49쪽, 53쪽.

도 즐겨 다루는 주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用語를 빌려, 古代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전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魯鎮 문화의 핵심인물 魯四의 勵志·祈福聯을 통해 儒·道互補적 民俗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道教的 “朱拓的大壽字”

老·莊으로 대표되는 先秦시기의 道家철학은 東漢시대에 이르러 중국의 土俗宗教인 道教로 형성된다. 牟鍾鑾은 〈道教與中國傳統文化〉에서 道家를 道教 형성의 來源 중 하나로 보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來源의 一’은 고대의 민간 巫術이다. 옛사람들은 질병은 귀신이 몸에 붙은 것이므로 반드시 무술로 쫓아내야 한다고 여겼다. 이로 인해 부적과 주문으로 귀신을 쫓는 법술이 생겨났다. 이후의 도교의 도술과 의술은 모두 민간에서 역병과 질병을 제거하던 무술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 ‘來源의 二’는 神仙전설과 신선이 되는 방술이다. 神仙說은 대부분 楚文化和 燕·齊文化로부터 나왔다. 齊威王·齊宣王·燕昭王과 秦始皇은 모두 方術에 심취하여, 사람들을 바다로 보내 신선의 不死藥을 찾도록 하였다. 漢武帝가 총애하던 少翁·欒大·公孫卿 등의 方士들은 모두 齊나라 사람들이었다. 武帝는 온종일 黃帝처럼 날아올라 신선이 되는 몽상을 하였다. 이런 신선학설과 求仙활동은 도교, 특히 丹鼎派 도교의 직접적인 내원이 되었다. ‘來源의 三’은 荊楚文化의 道家哲學으로, 주요한 것은 《老子》와 《莊子》이고, 그 다음은 《列子》와 《文子》 등의 책이다. 특히 《老子》의: “谷神은 죽지 않는다”와 “長生 久視의 道” 養生論과, 《莊子》의: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을 들이마시고 이슬을 마시며, 飛龍을 타고 四海의 밖에서 노니는” 神仙家의 말은 도교에서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던 사상적 자료였다. 도교는 원래 세속적인 미신의 혼합체였지만, 道家의 이론을 이용하고 개조할 수 있었기에 독특하고도 계통적인 신학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 ‘來源의 四’는 漢代의 陰陽五行化된 儒家經學이다. 도교는 그 시초부터 유학의 보조자적인 면모로 출현하여, 漢代의 經學 사상을 대량 흡수하였다. 道家사상과 神仙家사상이 도교의 초인간성을 이끌어냈다면, 儒家사상은 도교에 현실성과 인간성을 부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10) 牟鍾鑾 〈道教與中國傳統文化〉: 「來源之一是古代的民間巫術. …… 先民以爲疾病是有鬼附體, 需用巫術加以祛除, 由此有符咒驅鬼的法術. …… 後來道教的道術與醫術, 皆

위의 네 가지 來源은 본장에서 논하고자 하는 「朱拓的大‘壽’字」와 모두 유관하다. 본장 제1절의 ‘붉은 색 民俗’은: ‘來源 一과 四’의 ‘消疫去病’과 陰陽五行, 제2절 陳搏의 大‘壽’字와 長壽 文化’는: ‘來源 二와 三’의 丹學과 養生을 통한 長壽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붉은 색 民俗

魯四는 서재에 걸었지만,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집 대청 정중앙에 朱拓 즉, 朱砂를 사용하여 붉은 색으로 탁본한 족자를 걸고 그 양 옆에 대련을 걸어 두었다. 위에서 말한 勵志·祈福聯인데, 내용은 대부분 비석에서 탁본해 온 문자들로, 그 중에서도 ‘壽’자와 ‘福’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지인의 생일을 맞이하면 朱拓한 ‘壽’자를 보내 祝壽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습속이 있었다.

붉은 색은 중국민족의 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국인에게 있어서 붉은 색은 기쁨·축하·경축·길조·성공 등을 의미하는 전통적인 吉祥의 색이다. 중국인들은 붉은 색을 대단히 숭상하여, 중요한 의식이나 장소에는 늘 붉은 색으로 장식을 한다. 예로부터 제왕들은 붉은 색으로 권위와 위엄을, 부자들은 재산과 번창을, 군인은 용기와 투지를, 文人들은 봄날의 활력과 애정을, 일반백성들은 기쁜 경사와 吉祥을 표시하였는 바,¹¹⁾ 현재는 그들의 國旗까지도 붉은 색을 주조로 하고

起于民間消疫去病的巫術. …… 來源之二是神仙傳說和成仙方術. 神仙說多出自楚文化與燕齊文化. …… 齊威王·齊宣王·燕昭王和秦始皇都醉心方術, 派人入海覓仙求不死之藥. 漢武帝寵信的少翁·欒大·公孫卿等方士, 皆齊人, 武帝整日夢想如黃帝一樣飛昇成仙. 這些神仙學說與求仙活動成爲道教尤其是丹鼎派道教的直接來源. 來源之三是荊楚文化的道家哲學, 主要是《老子》和《莊子》, 其次是《列子》·《文子》等書. …… 至于《老子》書中“谷神不死”·“長生久視之道”的養生論, 《莊子》書中神人“不食五穀, 吸風飲露, 御飛龍而遊乎四海之外”的神仙家言, 更是道教可以直接吸收的思想資料. 道教原本是世俗迷信的雜合, 由于它能利用·改造道家理論, 形成一套獨特而又系統的神學. …… 來源之四是漢代陰陽五行化了的儒家經學. 道教從一開始就以儒學補助者的面目出現, 大量吸收漢代經學思想. …… 如果說道家和神仙家的思想引出了道教的超人間性, 那麼可以說儒家思想賦予了道教以現實性和人間性.」(《道教與中國傳統文化》, 北京, 中華書局, 2005), 18-20쪽.

11) 〈中國人的紅色情結〉: <http://forum.book.sina.com.cn/viewthread.php?tid=1978409> 참조.

있다. 春節 같은 명절을 맞이하면 붉은 색 대련이나, 剪紙한 글자와 그림을 붙이고,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빨간 색 봉투(紅包)에 넣어 건넨다. 결혼식 때 신부는 붉은 색 옷을 입고 붉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붉은 색 가마를 타고, 붉은 색의 폭죽과 鞭爆을 터뜨린다. 다시 말해 중국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붉은 색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朱砂를 사용하여 탁본을 뜨는 것은, 붉은 색 朱砂의 특별한 효능을 믿었던 民俗에서 유래된 것이다. 辰砂, 丹砂로 불리며 顔料로도 사용되었던 朱砂는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辟邪를 대표하였다. 《說文解字》는 ‘丹’을: 「巴越에서 나는 赤色 돌(巴越之赤石也.)」이라 풀이하였는데, 《神農本草經》은 丹砂의 성질에 대해:

丹砂의 맛은 달고 조금 찬 성질이다. 신체 五臟의 백 가지 병을 주관한다. 정신을 양생하고 혼백을 안정시키며 氣를 보태고 눈을 밝게 하며, 도깨비와 사악한 귀신을 죽인다. 오래 복용하면 신명과 통하고 늙지 않는다.(丹砂味甘, 微寒, 主身體五藏百病. 養精神, 安魂魄, 益氣, 明目, 殺精魅邪惡鬼, 久服通神明, 不老.)¹²⁾

라고 하였다. 《神農本草經》은 수록한 약들을 上·中·下藥으로 나누었는데, 丹砂를 上藥편의 가장 첫 번째에 두었다. 그만큼 丹砂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붉은 색을 나타내는 글자로는 赤·紅·丹·朱·彤 등이 있지만, 神話傳說시대에 南方의 天帝를 赤帝라고 했듯이, 고대에는 주로 ‘赤’자를 사용하여 붉은 색을 표현하였다. 甲骨文 ‘赤’자는 불(火)의 색을 표현한 것이고, 《說文》도:

赤은 남방의 색으로, ‘大’와 ‘火’를 따른다. 무릇 붉은 색에 속하는 것은 모두 赤을 따른다.(赤, 南方色也, 從大從火. 凡赤之屬皆從赤).

라고 ‘赤’이 ‘큰 불’을 말한다 했고, 그 古字도 큰 ‘大’자 아래에 불 ‘火’자를 썼다. 段玉裁는 여기에 注를 달아:

火는 (五行에서) 남방의 行이므로, 赤은 남방의 색이다. 大를 따른 것은 아주 밝다는 것을 말한다.(火者南方之行, 故赤爲南方之色. 從大者, 言大明也.)

12) 《神農本草經》(台北, 臺灣中華書局, 1975(民國64)), 3-4쪽.

라고 ‘赤’이 ‘아주 밝은 불빛’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 《釋名·釋采帛》은:

赤은 붉은 빛으로, 태양의 색이다. (赤, 赫也. 太陽之色也.)

라고 직접적으로 태양을 가리켰다. 太陽은 그 이름 자체가 ‘아주 큰 陽’을 말하고, 태양이 늘 비치는 南方은 陰陽五行에서 陽이 가장 강한 방향이다. 그러므로 태양의 색·남방의 색인 붉은 색은 陽이 가장 강한 색인 것이다.

옛날부터 민간에서는 邪氣는 陰氣로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불운을 가져다주는 나쁜 기운이고, 도깨비나 사악한 귀신 등도 陰氣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강한 陽氣를 사용하여 이를 극복하려 하였으니, 태양과 큰 불의 강한 陽을 나타내는 南方의 붉은 색이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邪氣나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붉은 색을 숭상하는 관념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辭海》에 의하면 ‘赤(chi)’은 발음이 같은 ‘斥(chi)’과 의미가 통한다 했는데, ‘斥’은 ‘배척하다·물리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색깔을 표현하는 ‘赤’ 역시 ‘물리치다·떠나다·구축하다’의 뜻으로, 즉 사악한 것을 쫓아버리는 辟邪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또 ‘朱(zhū)’도 ‘逐(zhú)’과 성조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으므로, 역시 ‘구축하다·쫓아내다’의 ‘逐’과 같은 뜻을 가진다고 하였다.¹³⁾

이상과 같이 옛사람들은 질병을 일으키고 불운을 가져오는 나쁜 기운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색을 이용하여 辟邪하였고, 그 습속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2. 陳搏의 大‘壽’字와 長壽 文化

1) 陳搏과 그의 養生 功法

魯四의 서재 벽 중앙에 걸려 있는 커다란 ‘壽’字는 陳搏이 쓴 것이다.

陳搏은 五代末 宋初(871-989)의 道家學者로 易學에도 통달한 一代 宗師이다.

13) 商文 〈春節的起源〉: <http://fatherspring.blog.sohu.com/143260337.html>에서 인용.

그는 字가 圖南이고, 號는 扶搖子로 향년 118세로 장수하였다. 그의 字나 號에서 볼 수 있듯이 莊子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圖南'이나 '扶搖'는 모두 《莊子》의 〈逍遙游〉편에 등장하는 말이다.¹⁴⁾

陳搏은 초년에는 儒學을 공부하였지만, 과거시험에서 낙방한 후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서 은거하며 道家의 학문을 공부하였다. 처음에는 武當山에 들어가 20년을 살며 神仙의 養生術을 배웠는데, 處士와 100세가 넘는 隱士들과 교유하였고, 八仙의 한 사람인 呂洞賓과 隱士인 李琪와는 절친한 친구였다고 한다. 나중에 그는 다시 華山에 정착하여 40년을 살았는데, '壽'자는 바로 이 시기에 쓴 것이다.

《宋史·隱逸列傳》에 이르기를:

陳搏은 字가 圖南이고 박주 진원 사람이다. 4-5세 때 외수강 기슭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떤 푸른 옷의 할머니가 그에게 젓을 먹였다. 그때부터 날로 총명해졌다. 성장하여 經·史와 諸子百家의 책을 읽으니 한번 보면 외우고 하나도 잊지 않았으며, 詩名이 꽤 높았다. 後唐 長興 때에 進士 과거를 보았으나 급제하지 못하여, 마침내 벼슬길을 버리고 山水로 낙을 삼았다. 스스로 말하기를, "전에 孫君仿과 장피처사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들은 道 수행이 높은 사람들로 나에게 이르기를: '武當山의 九室巖은 가히 은거할 수 있으리라'하여 가서 살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氣를 마시고 곡식을 피하며 20여년을 지냈는데, 단지 하루에 술을 몇 잔씩 마실 뿐이었다. 나중에 華山의 雲臺觀으로 옮겨 살았고 또 少華山의 石室에도 머물렀는데, 매번 잠을 잘 때마다 100여 일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五代)周의 世宗이 黃白術¹⁵⁾을 좋아하였는데 陳搏의 이름을 알리는 자가 있어, 顯德 3년에 華州에 명하여 그를 궁궐로 보내라 하였다. 한 달여 동안 그를 머물게 하며 은근히 그 方術에 대해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四海의 주인이시니 마땅히 治國에 힘을 다할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어찌 黃白의 일에 마음을 두시나이까?" 하였다. 世宗은 질책하지 않고 諫議大夫에 명하였으나 고사하고 받지 않았다. 세종은 그에게 다른 方術이 없음을 알자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냈다. (陳搏, 字圖南, 亳州眞源人. 始四五歲, 戲渦水岸側, 有青衣媪乳之, 自是聰悟日益. 及

14) 《莊子·逍遙游》: 「봉새가 남명바다로 갈 때는 물을 삼천리를 쳐올리고 '회오리바람(扶搖)을 치면서 구만리를 올라간다(鵬之徙于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등에 푸른 하늘을 업고 막히는 것 없이, 이에 장차 '남쪽으로 가는(圖南)' 것이다(背負青天而莫之天闕者, 而後乃今將圖南)」.

15) 黃白術은 煉丹術을 말한다. 색깔대로 黃은 金을 白은 銀을 말하는 것으로, 금속물질을 제련하여 丹藥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丹藥은 長壽와 관련이 있다.

長, 讀經史百家之言, 一見成誦, 悉無遺忘, 頗以詩名. 後唐長興中, 舉進士不第, 遂不求祿仕, 以山水爲樂. 自言嘗遇孫君仿· 寧皮處士二人者, 高尚之人也, 語搏曰, “武當山九室巖可以隱居.” 搏往棲焉. 因服氣辟穀歷二十餘年, 但日飲酒數杯. 移居華山雲臺觀, 又止少華石室. 每寢處, 多百餘日不起. 周世宗好黃白術, 有以搏名聞者, 顯德三年, 命華州送至闕下. 留止禁中月餘, 從容問其術, 搏對曰, “陛下爲四海之主, 當以致治爲念, 奈何留意黃白之事乎?” 世宗不之責, 命爲諫議大夫, 固辭不受. 既知其無他術, 放還所止.)¹⁶⁾

라고, 儒家의 經書를 공부하다 科擧에 낙방한 이후로 道家 학문에 전념하며 도교적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매번 잠을 잘 때마다 100여 일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陳搏의 睡功法을 말한다. 그는 睡仙으로도 유명한데, 그의 睡功 수련법은 잠을 통해 수련하는 독특한 內丹修煉法으로, 그는 한 번 잠이 들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보통 몇十日 동안 자는데, 어떤 때는 백일 동안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睡功法은 陳搏의 內丹學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睡眠에도 道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至人の 잠’으로 ‘세속인의 잠과 구별되는 것이다. ‘至人の 잠’은 실제로 도교의 內丹修煉法의 일종으로, 편안히 누워 靜養하는 것을 통해 정신과 氣를 모으고, 정신을 단련하여 虛로 돌아가고, 虛를 단련하여 道와 합치되게 하는 수련법이다.¹⁷⁾ 그는 睡功法을 장기적으로 수련하여 118세까지 장수하고 華山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¹⁸⁾ 그는 養生의 대가였다고 할 수 있다.

《宋史·隱逸列傳》은 또 宋太祖 趙匡胤 三父子의 觀상을 보고 제왕이 될 것을 예견한 바와 같이 相術에도 뛰어났던 神通함을 기술하였고, 아래와 같이 그의 神仙 黃白術과 吐納¹⁹⁾養生術 등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例擧하고 있다. 그는 趙匡胤의 아우인 太宗 趙光義에게서 직접 ‘希夷先生’이라는 호를 하사 받기도 하였다.

太平興國 年間に 조정에 오자 太宗은 매우 후대하였고, 9년에 다시 오자 왕은 더 두텁게 예우하며 재상 宋琪 등에게 이르기를: “搏은 오직 그 몸을 잘 돌보고

16) 《宋史·列傳》第216卷〈隱逸 上〉‘陳搏’條.

17) 孔又專《陳搏道教思想研究》(成都, 巴蜀書社, 2009), 137쪽 참조.

18) 印文權〈陳搏老祖〉: <http://mypage.zhyww.cn/post/200403/17696.html> 참조.

19) 입으로 더러운 氣를 토하고, 코로 신선한 氣를 마시는 道家 수련법.

세력과 이익에 간여하지 않는 소위 속세를 떠난 隱者다. 단이 華山에 기거한지 이미 40여년이니 그 나이를 꼽아보면 100세에 가까운데, 스스로 말하기를, ‘五代之 변란을 겪었는데 지금 다행히도 천하가 태평하기에 조정에 알현하러 왔다’고 말을 하더라. 더불어 이야기를 하니 매우 들을 만 했다’라고 말하였다. ……宋琪 등이 은근하게 묻기를: “선생께서는 현묘하고 靜默한 수양과 養生의 도리를 터득하였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하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단은 山野의 사람이라 시국에 쓸모가 없고, 또 神仙 黃白의 일과 吐納 養生의 이치를 모르니 전할 만한 방술이 없습니다. 만일에 대낮에 하늘로 솟아올라 신선이 된들 세상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성상의 용안이 준수하고 남달라 天人之 儀表가 있으니……정말로 道가 높은 仁聖한 임금이니, ……부지런히 수련을 한다 해도 이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고 했다. 宋琪 등이 좋다 하며 왕에게 그 말을 전하니 왕은 더욱 그를 중히 여겼고, 조서를 내려 ‘希夷先生’이라는 호를 하사하였다. ……왕은 수차례 그와 함께 詩賦를 지어 화답하고, 몇 달 뒤 산으로 돌려보냈다.(太平興國中來朝, 太宗待之甚厚. 九年復來朝, 上益加禮重, 謂宰相宋琪等曰, “搏獨善其身, 不干勢利, 所謂方外之士也. 搏居華山已四十餘年, 度其年近百歲. 自言經承五代離亂, 幸天下太平, 故來朝觀. 與之語, 甚可聽.” 因遣中使送至中書, 琪等從容問曰, “先生得玄默修養之道, 可以教人乎?” 對曰, “搏山野之人, 於時無用, 亦不知神仙黃白之事, 吐納養生之理, 非有方術可傳. 假令白日沖天, 亦何益於世? 今聖上龍顏秀異, 有天人之表, ……眞有道仁聖之主也. ……勤行修煉, 無出於此.” 琪等稱善, 以其語白上. 上益重之, 下詔賜號希夷先生, ……上屢與之屬和詩賦, 數月放還山.)

그 외에도,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고, 멀리 있는 제자의 모친이 병이 났다가 회복된 것도 알아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사망일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더니 과연 예언한 그 날짜에 세상을 떠난 일까지도 두루 기록하고 있다.

陳搏의 유명한 氣功에는 睡功法 이외에 ‘十二月 坐功法’도 있다. 坐功法은 天地陰陽의 이치에 맞게, 呼吸과 導引法으로 24절기에 순응하고 經絡과 氣血을 조화롭게 하는 內丹수련법이다. 이는 道教의 內丹養生과 中醫藥을 결합시킨 것이다.²⁰⁾

李澤厚는 《美的歷程》에서 또 말한다.

20) 孔又專 위의 책, 142쪽.

표면적으로 보면 유교와 도교는 서로 다르고 대립적이어서, 하나는 속세로 들어가는 入世이고, 하나는 속세에서 나가는 出世이며; 하나는 낙관적·진취적이고, 하나는 소극적·도피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은 상호보충적이고 협조적이다. '천하를 제도하는 것'과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늘 후세 사대부들의 互補적인 인생 노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탄·강개와 속세에 대한 울분, 그리고 '몸은 江湖에 있지만 '마음은 조정에 두는' 것 또한 중국 역대의 지식인들의 常規적 심리와 예술적 관념이 되었다.²¹⁾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儒·道互補의 인생철학은 많은 士인과 관리, 그리고 文人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벼슬하여 조정에 나아가면 儒家人으로서 “安邦·治國·兼濟天下”를 도모하였고, 물러나면 은거하여 道家의 학문에 힘써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 名山大川에 漫遊하며 시를 쓰거나, 隱士가 되어 修身과 養生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현실생활에서 順境에 처하면 儒家意識이 우위를 차지했고, 逆境에 처하면 道家意識으로 위안을 삼았다고 할 수 있다. 儒家는 현실생활을 잘 영위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道家는 사람들이 실의에 빠졌을 때 정신적으로 위안과 평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儒家나 道家를 시국과 자신의 처지에 알맞게 취하여 상호보충·보완시키면서 살아온 이러한 생활방식은, 중국인의 정신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요구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현재는 儒·道文化의 많은 부분이 사회에서 사라졌지만, 그 精髓 부분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生存과 養生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전통문화로 남아있다.²²⁾

《宋史·隱逸列傳》에서 보았듯이, 陳搏도 젊은 시절 유학을 공부했지만 과거시험에 낙방하자 산속으로 은거해 들어가 도가의 학문을 연구하고, 內丹수련을 통한 養生術을 연마한다. 이러한 그의 삶과, 다음 Ⅲ章에서 논할 그의 학문적 내용으로 볼 때, 陳搏이야말로 儒·道互補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21) 李澤厚 위의 책: 「表面看來, 儒道是離異而對立的, 一個入世, 一個出世; 一個樂觀進取, 一個消極退避; 但實際上它們剛好相互補充而協調. 不但‘兼濟天下’與‘獨善其身’經常是後世士大夫的互補人生路途, 而且悲歌慷慨與憤世嫉俗, ‘身在江湖’而‘心存魏闕’, 也成爲中國歷代知識分子的常規心理以及藝術意念.」, 53쪽.

22) 王祥雲 〈老莊思想及儒道互補對中國文化精神的影響〉; 開封大學學報 第20卷 第4期, 2006.12 참조. 王家宏·王家輝 〈略論中國傳統文化之生存及養生智慧〉; 中共桂林市委黨校學報 第1期, 2010.3 참조.

있다.

2) 長壽 문화

‘壽’자는 甲骨文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周代의 청동기 銘文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이로 보아 중국에는 殷商시기에서 周대에 이르는 사이에 長壽에 대한 관념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²³⁾ 王雲莊은 〈中國壽文化〉에서 ‘壽’자의 형성과 운용에 대하여:

고대에는 年老함과 생명의 年限을 모두 ‘壽’라고 칭했다. 金文 ‘壽’자의 윗부분은 ‘사람(人)’의 형상으로 뜻을 나타내고, 아랫부분은 ‘疇’자로 발음을 표시한다. 거기에 ‘한쪽 손’을 더해 노인을 부축하는 것을 나타냈고, 또 술잔을 표시하는 ‘口’자를 더하여, 잔을 들어 祝壽하는 의미가 되었다. 이것들을 합하여, 위쪽의 형태는 老와 비슷하고, 아래는 疇와 비슷한 형태의 形聲字 ‘壽’자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壽’자는 周대에 이르러 광범위하게 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 壽자 운용의 긍정적 의미는, 이로써 복과 吉祥을 받아들이고, 高齡으로 장수하고, 뜻처럼 건강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미 중화민족 조상 대대로 오랜 세월을 걸쳐 일반화된 사회적 풍상이 되었다. 늙으면 長壽하는 것이고, 장수하면 존엄해지며, 존엄하면 貴해지고, 귀하면 福이 된다. ‘壽’자는 비록 漢字 중에서 최초로 나타난 문자는 아니지만, 그것은 오히려 중국에서 가장 변화 많은 異體 글자인 것이다. …… 중국 역대의 碑文·鍾鼎文·漢代瓦磚·帛書·竹簡·典籍·器物·書畫들 중에도 대량의 ‘壽’字가 있는데, 筆者가 저작한 《中國萬壽圖譜集注》라는 서예 두루마리에는 13,822개의 異體字만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 어떤 漢字도 모두 뛰어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²⁴⁾

23) 蘇克明 《壽·壽禮·壽星》(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09), 1쪽 참조.

24) 王雲莊 〈中國壽文化〉: 「古代把年老及生命的年限都稱爲壽. 金文壽上部以人的形象表意, 下部以疇表音, 加了一隻手, 表示扶壽, 還加個表示酒杯的口, 爲舉杯祝壽. 把它們結合在一起, 上邊形似老, 下邊形似疇, 組成一個形聲字壽. 形聲壽字到周代得到了廣範應用. …… 運用壽字的褒意, 以示招福納祥, 期盼追求人生高齡長壽, 健康如意, 已成爲中華民族祖祖輩輩約定俗成的社會風尚. 老而爲壽, 壽而爲尊, 尊而爲貴, 貴而爲福. 壽字雖不是漢字中出現最早的文字, 但它却是中國多變的異形單字. …… 在中國歷代碑刻·鍾鼎·漢磚·帛書·竹簡·典籍·器物·書畫中, 也有大量壽字. 然而一個壽字在筆者《中國萬壽圖譜集注》書法長卷中, 就展示13,822個不同寫法. 可以說超過了其他任何一個漢字.」(《尋根》2004年 第2期)

라고 하였는데, 殷偉·殷斐然의 《中國壽文化》에 따르면, 王雲莊은 《中國萬壽圖譜集注》에 16,000여종의 ‘壽’字 異體字를 수집해 놓았다고 하니,²⁵⁾ ‘壽’字의 변화무쌍함은 어느 漢字와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역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壽’자에 집착한 것은古今을 막론하고 長壽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魯四의 서재 벽에 걸려 있는 朱拓한 ‘壽’자는 陳搏이 원래 華山の 암벽에 쓴 것인데, 지금 山東 蓬萊市에 있는 天后宮의 蓬萊閣에 있는 ‘壽字碑’ 역시 華山에서 탁본으로 떠다 비석에 새겨 놓은 것이다.²⁶⁾ 이 이외에도 安岳·大足·潼南과, 峨眉山 等地에도 ‘福’자와 더불어 石刻으로 보존되어 있다. 陳搏은 특히 壽·福 두 글자를 쓰기 좋아하였는데 그 서체가 특별하여, 緒論의 주4)에서 언급했던 近代의 유명한 사상가 康有爲는 전문적으로 그의 서체를 배우기도 했다고 한다.



陳搏의 ‘壽’字

陳搏의 ‘福’字는 白鶴이 芝草밭을 디디고 있는 형태이고, ‘壽’字는 靑龍이 玉기둥을 휘감고 있는 형태로 쓴 것으로, 古今에 드문 글씨체이다. 두 글자 모두 독특한 특색을 가지는 여러 글자의 복합체인데, 특히 草書로 씌어진 ‘壽’자는 4 글자의 합체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壽’자이지만, 그 속에 또 다른 글자들, 즉 ‘佛(佛)·富·林’ 3자가 들어 있는데, 위쪽은 ‘富’자이고, 가운데는 ‘佛’자, 아래는 ‘林’자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富·佛·林·壽’의 4글자인 것이다. 즉, “富는 경제적인 여유로움; 佛은 禪心의 영원함; 林은 생태환경”의 뜻을 내포하는데,²⁷⁾ 이 뜻을 모두 합쳐 생태 환경적으로 풀이하면;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을 조성하면 부유해지고, 禪(佛)心을 닦으면 長壽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는 道家의 인간·자연·생태균형에 대한 중시와 자연환경보호 등에 대한 사상을 표현하고 있으니, 실로 후세사람들을 위해서 귀중한 필적을 남겨 놓았다고 하

25) 殷偉·殷斐然 위의 책, 147쪽, 156-157쪽 참조.

26) 殷偉·殷斐然 《中國壽文化》(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5), 83쪽 참조.

27) 殷偉·殷斐然 앞의 책, 82-83쪽 참조.

겠다.²⁸⁾ 民間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華山 석벽에 새겨진 이 ‘壽’자는 영험함이 있어서 여기에 기도하면 모든 병을 제거하고 華山처럼 오래 장수할 수 있다고 한다.²⁹⁾

長壽 문화는 祝壽·賀壽로 대표되는데, 그중에서도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글을 써서 축하의 선물로 주던 詩句나 壽聯이 더욱 대표적이었다. 壽聯은 春聯에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 漢代이전의 民間에서는 새해에 문 옆에 복숭아 나무판자를 걸어 辟邪하는 습속이 있었고, 나중에는 복숭아나무 판자에 吉祥의 말이나 辟邪의 뜻을 담은 말을 쓰는 것으로 발전하였는데,³⁰⁾ 점점 더 고상하고 더욱 공을 들이는 문장으로 변하여서 나중에 春聯이 되었다. 또 한편 壽詩가 발생함에 따라서도 점차로 壽聯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壽詩나 壽詞보다 짧고 간편하고 특히 걸어놓기도 좋아, 궁정과 民間 모두에서 壽聯은 생일선물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되었다.³¹⁾

이러한 모든 ‘壽’字의 운용은 長壽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민족의 사회기풍으로 정착되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五福의 으뜸은 ‘壽’라고 여겨왔다. 《尙書·洪範》을 보면:

五福, 一曰壽, 二曰富, 三曰康寧, 四曰修好德, 五曰考終命.(五福은 첫째가 壽이고, 둘째가 富, 셋째가 康寧한 것이고, 넷째는 좋은 德을 닦는 것이며, 다섯째는 늙어 天命을 다하는 것이다.)

28) 互動百科〈陳搏〉: <http://www.hudong.com/wiki/%E9%99%88%E6%8A%9F> 참조.

29) 蔡漢炎〈漁湖塘埔 華山老祖廟〉: 揭陽日報 2000年 6月 24日 참조.
〈陳搏‘福壽’奇書〉: <http://forum.china.com.cn/viewthread.php?tid=574523d> 참조.

30) 복숭아나무는 앞 節의 ‘붉은 색 民俗’에서 살펴 본 丹砂와 서로 상통하는 작용이 있으니, 바로 辟邪이다. 복숭아나무는 그 가지가 붉은 색일 뿐 아니라, 꽃은 봄날 가장 먼저 피는 붉은 색의 꽃이다. 봄은 陽으로 햇빛이 밝아오는 계절이다. 陽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계절에, 그 왕성한 氣를 받아 가장 먼저 피어나는 붉은 꽃과 붉은 색 가지를 보고 옛사람들은 陽의 기운이 가장 강하므로 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남쪽으로 난 복숭아나무 가지로 狂人을 치료하던 습속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강한 陽으로 사악한 陰의 기운을 쫓아버리고자 했던 辟邪민속인 것이다.

31) 蘇克明《壽·壽禮·壽星》(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09), 131-132쪽 참조.

라 하였는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福·祿·壽·禧·財를 五福으로 치며, 역시 '壽'를 첫째로 꼽는다. 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長壽'에 대한 열망과 추구는 秦始皇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적극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진시황이 자신의 不老長生을 위해 方士 徐福으로 하여금 童男童女 3천명을 인솔하고 東海로 가서 仙藥을 구하도록 한 것은 누구나 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唐代의 武則天은 집정 14년 동안 4차례 걸쳐 「長壽·天冊萬歲·萬歲登封·萬歲通天」 등, 모두 장수와 연관된 글로 年號를 고쳤다. 그리고 淸 康熙年間に 도자기로 유명한 景德鎮에서 1만여 개의 '壽'字 異體字를 수집하여 靑花萬壽瓷瓶을 만들었는데, 이는 康熙 황제만을 위해 만든 것으로 그의 萬壽無疆을 기원하는 의미였다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萬壽圖'가 만들어졌고, 慈禧태후의 六十壽 축수 때는 또 '千壽圖'가 나타났다. 이것은 청나라 조정이 서태후의 六十大壽를 경하하기 위해 古의 '壽'字를 수집하는 부서를 조성하여 百壽圖를 수집했고, 또 潘懋勛이 4,000여 개의 필체가 다른 篆體 '壽'字를 만들어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³²⁾

이런 史實들은 모두 중국인의 생명에 대한 중시와 사랑, 장수에 대한 열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소멸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애착을 다양한 형식으로 체현하였는데, 이로부터 중국의 여러 문화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도 다양한 壽文化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魯四가 붉은 '壽'자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한 것 역시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 기풍과 습속으로 전해져 내려온 長壽文化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일반 사람들이 집의 正堂이나 침실에 걸어두는 습속과는 달리, 자신만의 공간인 서재에 걸어두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학문에 힘쓰기 보다는 생명의 장수를 더욱 열망하고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Ⅲ. “一邊的對聯”과 儒家의 道德修養

魯四 서재의 벽에 한 쪽만 남아 있는 대련의 내용은 「事理通達 心氣和平」이다.

32) 王雲莊 위의 논문 참조.

이것은 宋代 理學者 朱熹가 《論語·季氏》편에 注를 단 《論語集注》의 문장이다. 먼저 《論語·季氏》의 원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공자가) 일찍이 홀로 서 계셨는데, 아들 鯉가 와서 뜰을 지나갔다. 말씀하시기를, “시경을 배웠느냐?” 하시니, “아닙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시경을 배우지 않으면 함께 대화를 할 수 없느니라.” 鯉는 물러나와 시경을 배웠다. 다른 날 또 홀로 서 계시는데, 鯉가 뜰을 지나갔다. “예경을 배웠느냐”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예경을 배우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 하시니, 鯉가 물러나와 예경을 배웠다.(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 他日又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禮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³³⁾

朱熹는 《論語集注》에서 「不學詩, 無以言(시경을 배우지 않으면 함께 대화를 할 수 없다)」에: 「事理通達, 而心氣和平, 故能言(사리에 통달하면 심기가 화평하여 능히 더불어 말할 수 있다)」이라고 注解하였고; 「不學禮, 無以立(예경을 배우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에는 「品節詳明, 而德性堅定, 故能立(품절이 상세하고 밝으면 덕성이 견고해져 존립할 수 있다)」이라고 注解하였다.

魯四의 서재 벽에 걸려 남아 있는 한 쪽의 대련이 「事理通達 心氣和平」이므로, 이로 미루어 볼 때, 떨어져서 책상 위에 느슨하게 말아 놓은 한쪽의 대련은 「品節詳明 德性堅定」일 것이다. 그러나 魯四는 이 대련을 다시 걸지 않고 그대로 말아서 방치해 놓은 것으로 보아, 덕성함양을 말하고 있는 이 구절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朱熹는 孔孟 이후 영향력이 가장 큰 유가 사상가로 朱子라 일컬어지고 있다. 그는 儒家思想을 집대성하였고, 北宋 理學을 계승하여 ‘理’를 세계의 본질로 보았다. 理學은 또한 道學이라고도 칭하는데, 이것은 孔孟思想에 대한 宋代 유학자들의 闡釋으로, 송 이후 봉건예교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朱熹의 사상적 근원은 앞서 살펴본 陳搏으로, 그는 宋代 易學의 개창자이기도 하다. 《宋史·隱逸列傳》에 또 이르기를:

33) (宋) 朱熹 《四書章句集注》(北京, 中華書局, 1983), 173-174쪽.

단은 《易經》 읽기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늘 스스로를 '扶搖子'라 불렀다. 그는 《指玄篇》 八十一章을 지어 導引 양생과 煉丹의 일을 말했다. 宰相 王溥 역시 八十一章을 지어 그 뜻에 附箋하였다. 단은 또 《三峰寓言》 및 《高陽集》과 《釣潭集》, 그리고 600餘首의 시가 있다. (搏好讀《易》, 手不釋卷. 常自號扶搖子, 著《指玄篇》八十一章, 言導養及還丹之事. 宰相王溥亦著八十一章以箋其指. 搏又有《三峰寓言》及《高陽集》·《釣潭集》, 詩六百餘首.)

라며 그의 저작들을 열거하였다. 이 이외에도, 송대 理學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華山 石壁에 새긴 《無極圖》와 《先天圖》 등이 있는데, 이 저작들을 逸失되고 대부분 후인들의 저작 중에 인용되어 전해진다. 이 같이 그의 저술들은 거의 사라졌지만, 周敦頤의 《太極圖說》과 邵雍의 《先天圖》는 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理學의 대표인물은 二程(程頤·程顥)과 朱熹로, 理學을 습관적으로 程朱理學이라 부른다. 그런데 朱熹는 程頤의 학설을 계승하였고, 程頤·程顥 형제는 周敦頤에게 수학하였는데, 周敦頤의 《太極圖說》은 바로 陳搏의 영향을 받아 저술한 것이다. 그러므로 朱熹 → 程頤 → 周敦頤 → 陳搏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陳搏을 宋代 理學의 鼻祖라 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朱熹는 陳搏의 傳記를 썼고, 도가의 경전도 정리한 바 있으므로, 朱熹의 사상도 儒·道의 융합이라 할 수 있다.³⁴⁾

中國思想史에서 陳搏은 理學의 개창자인 周敦頤와 邵雍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中國道教史에서 陳搏은 더욱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 후세의 道教徒들은 老子와 張陵³⁵⁾을 잇는 道教至尊으로 모시고 “老祖”라 칭하였다. 宋·元시기의 많은 저술들은 그에 관한 사적과 전설들을 대량 수집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중국 哲學史와 道教史에서 陳搏은 모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孔子는 仁愛롭고 큰 덕을 쌓으면 장수한다고 하였다.

《論語·雍也》: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

34) 孔又專《論陳搏易學思想的影響》;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8年 第6期 참조.

35) 東漢시대 五斗米道(天師道)의 창립자. 道教徒들은 그를 張道陵·張天師·正一真人·祖天師 등으로 부른다. 《老子》를 경전으로 삼고 '太上老君'이라 自稱함. 후에 洛陽 북쪽의 北邙山에 은거하여 長生道를 수련하고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자는 활동적이고, 인자는 정적이다. 지자는 즐겁게 살고, 인자는 오래 산다.(智者樂水, 仁者樂山. 智者動, 仁者靜. 智者樂, 仁者壽.)

《中庸》: 큰 덕을 반드시 長壽함을 얻는다.(大德必得其壽.)

즉, 사람들이 仁者의 마음으로 道德修養·修身·養性에 힘써 덕을 쌓으면, 品德이 높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長壽의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孔·孟으로 대표되는 유가 선현들은 '仁'을 핵심으로 하는 이론을 창립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爲政原則과 정치사상, 그리고 교육방침과 사람들의 전면적인 道德修養 등을 포함하지만, 그 핵심은 훌륭한 인격과 좋은 사회의 건립이다. 그래서 儒家는 '君자의 인격'을 갖춘 사람의 양성을 관심과 논의의 중심문제로 삼았다. 《論語》·《孟子》 등의 유가경전 중 대부분의 내용이 사람됨과 修身에 관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얻고자 하면 남도 얻게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論語·雍也》: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論語·衛靈公》: 己所不欲, 勿施於人」)고 하였고; 仁을 행하고, 仁愛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상적인 君자의 인격으로 보았던 것이다.³⁷⁾

孔子가 말한 「仁者壽」와 「大德必得其壽」의 '仁'과 '德'은 유가의 대표적인 道德修養 원칙으로, 그 本意는; 君자의 인격에 도달하기 위한 위와 같은 노력과 실천을 말한 것이고, 長壽가 그 최종 목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2-3천년 역사의 흐름에 따라, 長壽는 修養으로 얻어진 결과물에서 '仁者'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변했고, 더 나아가 모든 이의 공통적인 念願이 되었다. 그리하여, 「善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惡에는 악한 報應이 있다. 보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오지 않은 것이다(善有善報, 惡有惡報. 不是不報, 時候未到)」라든지, 「선하면 반드시 장수하고, 악하면 반드시 일찍 죽는다(善必壽考, 惡必早亡)」 또는 「남을 위해 양심에 거리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한밤중에 귀신이 문을 두드려도 두렵지 않다(爲人不做虧心事, 半夜不怕鬼敲門)」 등, 천여 년 동안 流傳되어 내려온 속담과 속어들이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³⁸⁾

36) 殷偉·殷斐然 위의 책, 55-65쪽 참조.

37) 王學堅 〈儒道情志與理想人格〉:

<http://www.rwzr.cn/Html/bhkf/jccx/41320070918154300.html> 참조.

魯四가 儒學을 깊이 있게 공부하여 君子의 인격을 갖춘 진정한 監生이었다면 「仁者壽」나 「大德必得其壽」 같은 장수와 연관된 儒家 原典의 문장을 대련으로 걸어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論語》를 註解한 朱熹의 注文을 서재 벽에 걸어 놓았는데, 그마저도 「事理通達 心氣和平」한 쪽만이 남아 있고, 「品節詳明 德性堅定」의 한 쪽 대련은 떨어진 채 책상 위에 방치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仁愛나 德性 함양 같은 유가의 핵심적 道德修養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心氣 화평하게’ 長壽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勵志聯이나 祈福聯을 걸 때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의미를 담은 글이나 그림을 가운데에 거는 것이 일반적 습속이다. 그런데 魯四는 유교적인 대련을 옆에 걸고, 道教적인 ‘壽’자를 중앙에 걸고 더 중시했던 것으로 보아, 표면적으로는 理學을 강구하는 監生 신분이지만, 내면적으로는 道敎적인 長生을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魯四는 유교와 道敎가 상호 보충·보완하는 儒·道互補적인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련은 실제로도, 본명이 周樹人인 魯迅의 고향집 德壽堂 안의 기둥에 써어 있는 楹聯이다. 紹興의 魯迅 故宅은 그의 조부 周福淸이 지었는데, 그는 進士에 급제하여 翰林에 이르렀고, 淸 조정에서 翰林院 庶吉士를 지낸 바 있다. 그는 위에서 언급했던 理學의 개창자 周敦頤를 집안의 조상으로 여겼다.³⁹⁾

德壽堂은 魯迅의 故宅 두 번째 건물로, 周씨 일족의 공동활동 장소로서 경사나 過年행사 혹은 연회를 열거나 손님을 접대하던 대청인데, 그 정중앙의 위쪽에 「德壽堂」이라 쓴 편액이 높이 걸려있고, 그 양쪽에 있는 기둥에 붉은 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事理通達 心氣和平」·「品節詳明 德性堅定」 두 文句가 楹聯으로 써어 있다고 한다.⁴⁰⁾ 이로 볼 때, 魯四 서재의 대련은 당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즐겨 걸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8) 蘇克明 앞의 책, 23-24쪽 참조.

39) 周冠五 《魯迅家庭家族和當年紹興民俗》(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06), 268쪽의 도표 참조. 葉雋·黃劍波 〈江南鄉村的躁動: 作爲文本和歷史場景的魯鎮小說〉:
<http://joshua2005bj.bokee.com/viewdiary.14328327.html> 참조.

40) 互動百科 〈紹興魯迅故居〉 참조.

IV. 結 論

魯迅의 《祝福》에 등장하는 魯四는 소설 속 魯鎮마을의 문화를 대표하는 핵심적 인물이다. 그의 서재에는 朱砂를 사용하여 붉은 색으로 탁본한 커다란 ‘壽’자와, 「事理通達 心氣和平」이라 쓴 한쪽의 대련이 함께 걸려있는데, ‘壽’자는 道教 祖師인 陳搏이 쓴 것이고, 對聯은 宋代 理學의 거두 朱熹가 《論語》를 해설한 문장이다. 즉 도교와 유교를 並置시킨 것이다.

옛사람들은 祝壽할 때 붉은 朱砂로 탁본한 ‘壽’字를 선물로 보내 長壽를 기원하는 습속이 있었다. 붉은 색은 陰陽五行에서 陽의 기운이 가장 강한 南方(火)의 색이다. 魯四가 朱拓한 ‘壽’字를 勵志·祈福聯으로 걸어둔 것은 강한 陽의 기운으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불운을 가져오는 사악한 陰의 氣運을 쫓아내어 辟邪하고, 건강과 장수를 빌던 民俗을 나타낸다.

魯四의 서재에 걸려있는 陳搏의 초서체 ‘壽’자는 원래 華山の 석벽에 쓴 것인데, 弗(佛)·富·林 3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풀이하면;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을 조성하면 부유해지고, 禪(佛)心을 닦으면 長壽한다” 라는 의미로 현재의 웰빙문화와 養生, 생태 환경보호의 취지와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壽’字는 역대의 碑文·鍾鼎文과 漢代의 瓦磚, 그리고 帛書·竹簡·典籍·器物·書畫들로부터 16,000여種의 異體字가 수집된 가장 변화가 많은 單字이다. 이같이 중국 역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壽’자에 집착했다는 것은, 그만큼 古수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이 長壽에 대해 강렬한 열망을 가졌다는 것을 응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陳搏은 道教의 祖師였을 뿐 아니라, 宋代 理學의 鼻祖이기도 하다. 그의 易學 연구는 理學의 개창자인 周敦頤와 邵雍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었고, 도교철학과 아울러 丹學·氣功 등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으니, 陳搏이야말로 儒·道互補를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역대의 중국문화는 儒家정신을 위주로 하고, 道家사상으로 보완하는 儒·道互補의 형태다. 儒家는 入世이며 낙관적·진취적이고, 道家는 속세에서 탈피하는 出世로 소극적·현실 도피적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대립적이지만, 실제로는 相互補充적이고 협조적이다. 역대로 많은 文人과 선비·관리들이 겉으로는 儒家人으로, 안으

로는 道家人으로 생활하였다. 다시 말하면 得意하여 順境에 처하면 儒家로 살고, 逆境에 처하여 失意하면 道家思想으로 정신적 위안을 삼으며 산 것이다. 이러한 儒·道의 상호보충과 융합은 중국인의 정신문화의 근간이 되었고,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 기풍과 습속으로 정착되었다.

魯四의 서재에 남아 있는 대련은 「사리에 통달하면 심기가 화평하다(事理通達 心氣和平)」이고, 떨어져 탁자위에 느슨하게 말아놓은 다른 한쪽의 대련은: 「품질이 상세하게 밝으면 덕성이 견고해진다(品節詳明 德性堅定)」이다. 그것을 방치하고 다시 걸어 놓지 않은 것은, 그가 '仁'과 '德'으로 대표되는 儒家의 덕성함양이나 道德修養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소설에서 魯迅은 유가의 理學을 강구하는 監生 신분의 魯四가 도교적인 長生不死를 열망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서재에 걸려있는 도교와 유교를 並置시킨 勵志·祈福聯을 통해, 질병이나 불운의 원인인 邪惡한 氣運과 잡귀를 辟邪민속으로 물리치고 '마음 평화롭게 장수'하고 싶어 하는 염원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매우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염원은 1920년대 당시의 紹興사람들 뿐만 아니라, 東西古수를 막론하고 현재까지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일 것이다.

【參考文獻】

《單行本》

- (魏)吳普 述·(清)孫星衍 輯《神農本草經》台北, 臺灣中華書局, 1975(民國64)
 (漢)許慎《說文解字》台北, 藝文印書館, 1979(民國65)
 (元)脫脫《宋史》台北, 洪氏出版社, 1975(民國64)
 魯迅〈祝福〉,《阿Q正傳·祝福》杭州, 浙江人民出版社·浙江教育出版社, 2001
 鄭欣森《魯迅與宗教文化》西安, 陝西人民教育出版社, 1996
 周冠五《魯迅家庭家族和當年紹興民俗》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06
 于民雄《道教文化概說》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1
 安繼民《秩序與自由:儒道互補初論》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王家祐·馮廣《道教之源》成都, 巴蜀書社, 2005
 楊軍《宋元三教融合與道教發展研究》成都, 巴蜀書社, 2009

- 文史知識編輯部 編《道教與傳統文化》北京，中華書局，2005
孔又專《陳搏道教思想研究》成都，巴蜀書社，2009
殷偉·殷斐然《中國壽文化》昆明，雲南人民出版社，2005
蘇克《壽·壽禮·壽星》成都，四川人民出版社，2009
李澤厚《美的歷程》北京，文物出版社，1981

〈論文〉

- 劉仲宇〈儒釋道與中國民俗關係述要〉；《世界宗教研究》，1996年，第4期
王雲莊〈中國壽文化〉；《尋根》，2004年，第2期
肖輝〈超越與重構—陶淵明文化精神的儒道互補〉；《銅陵學院學報》，2006年，第4期
王祥雲〈老莊思想及儒道互補對中國文化精神的影響〉；《開封大學學報》第20卷 第4期，2006.12
董平〈儒道互補原論〉；《浙江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37卷 第5期 2007.9
胡曉〈陳搏生平事迹述論〉；《安徽史學》2007年，第5期
孔又專〈論陳搏易學思想的影響〉；《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8年，第6期
邵龍寶〈儒道互補及其對中國社會之影響〉；《河南社會科學》第16卷 5期，2008.9
袁志鴻〈研修易道陳搏“歸成”華山〉；《競爭力》2009年，第1期
馬芳〈《說文解字》顏色詞文化詮釋〉；《蘭州學刊》2009年，第12期
王家宏·王家輝〈略論中國傳統文化之生存及養生智慧〉；《中共桂林市委黨校學報》第1期，2010.3

【中文提要】

在魯迅的代表作之一的《祝福》中，魯四是魯鎮文化的核心人物。魯四書房里的勵志·祈福聯表現出那個時代紹興人的‘儒·道互補’的習俗。他是「一個講理學的老監生」，却掛着道教陳搏老祖寫的，用朱砂拓印的大‘壽’字卷軸。在民間習俗中，朱砂具有驅逐·辟邪之意。‘壽’字的一邊是一幅勵志·祈福對聯，是：「事理通達，心氣和平」，脫落的另一邊是：「品節詳明，德性堅定」，都是北宋理學家朱熹解說《論語》的文章。

陳搏的朱拓的大‘壽’字在魯四書房裏的位置是壁的正中，這表示魯四對它是非常重視的。‘壽’字表示他期盼生命的長壽·健康如意的心願。這一般是掛在正

堂的，而他却掛到書房裏，可見魯四的心志不在讀書而在長壽。

陳搏是道教徒推崇爲老祖的，也是宋代理學的奠基人。陳搏在中國思想史上，對宋代理學有較大的影響，也爲宋代道教內丹派的形成奠定了基礎。他自己常修煉睡功法，一睡百日不醒。由于長期修煉，陳搏活到了118歲。

儒·道互補是中國傳統文化的主幹。表面看來，儒·道是離異而對立的，一個入世，一個出世；一個樂觀進取，一個消極退避。但實際上它們是相互補充而協調的。一般來講，歷代中國的文人和士大夫，處於順境，儒家意識占上風；處於逆境，道家意識來安慰。儒·道兩家構成相互補充的關係，深深影響着中國人的文化心態。魯四書房的壁上掛着的朱拓的大‘壽’字，和一邊的一幅勵志·祈福聯剛好是傳統的‘儒·道互補’民俗的例證。

【主題語】

노신, 축복, 유도호보, 진단, 붉은 색 민속, 장수, 양생
 魯迅, 祝福, 儒道互補, 陳搏, 赤色民俗, 長壽, 養生
 LuXun, blessing, new-year sacrifice, Chen Tuan, red color folk,
 mutual complement of Confucianism & Taoism,
 pray for longevity & healthy living

투고일: 2011. 7. 15 / 심사일: 2011. 7. 20~ 8. 5 / 게재확정일: 2011. 8. 10